

# 학원에 맡긴 高3 논술교육

## 광주·전남 일부 학교, 학원강사 초빙 특강 '논란'

### 전교조 "공교육보다 사교육 신뢰 우려"

### 학교측 "방과 후 학교 진행 문제 없다"

고3 수험생들의 논술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공교육이 사교육인 학원에 학생 논술지도를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P학원에 따르면 논술강사 7명이 광주시 광산구 U고등학교의 초청을 받아 지난 여름방학 동안 고3 수험생을 상대로 논술특강을 했다. '방과 후 학교'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논술특강은 7명의 강사들이 한 달간 5회·3시간씩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논술 작성법 등을 가르쳤다. 강의료는 1인당 5만원이었다.

광주시 D학원도 지난 1~2월 두 달간 전남지역 Y여고, 광주 J여고·K고·J고 등 4곳에서 논술교육을 했다. 학교의 요청으로 학원 강사 3명이 직접 고3 수험생 20여 명에게 학원에서

가르치던 방식으로 논술을 지도한 것이다.

학교 측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인 '방과 후 학교'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Y여고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과 후 학교 시스템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논술 전문 교사가 부족한 만큼 다음 방학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교육이 공교육에 침투함

으로써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김대준 정책실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초빙돼 학생 지도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공교육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도 벌어질 수 있다"며 "또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더욱 신뢰해버릴 수도 있는 등 부작용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전문성이나 정보력이 떨어지는 만큼 제재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국제가족 친선의 밤 UNESCO(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협회장 이용홍) 창립 42주년 기념식과 제11회 국제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13일 오후 광주 메리어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21개국 170여명의 외국인 등 500여명이 참석.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는 지난 1965년 창립한 광주의 대표적인 단체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등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노인급식비 횡령 '빈들회' 목사 법정구속

## 광주지법, 징역 1년 6월 선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3일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활비와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광주 노인·청소년 공동체 '빈들회' 대표 김모(58) 목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여년간 노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지만, 성직자이자 사회사업가인 사회적 경력에 비춰볼 때 더욱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횡령금액도 1억7천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목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칭찬과 존경을 받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효사랑복지문화센터 신축공사를 하도록 한 뒤 공사대금을 마련할 대책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2001년 1월10일께 광주시 남구청에서 지급한 노인 무료 급

식 보조금 900여만 원을 입금받아 5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말까지 총 149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효사랑 복지문화센터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13억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빈들회'는 1987년부터 20여 년 동안 광주공원에서 '사랑의 쉼터'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급식활동을 해 왔으며 1996년부터는 노인 무료 목욕탕도 운영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탈취범 우울증 치료 경력

## 수사본부, 탈취한 총으로 2차 범행 계획

군·경합동수사본부는 13일 총기탈취 용의자 조모(35)씨는 날씨 변화에 따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성향이 있어 약 3개월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조씨는 또 1년 전 사기를 당해 사업에 망하고, 10년간 사귀어온 애인과 헤어진 뒤 외부 접촉을 기피하는 등 사회 폐쇄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조씨는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사건 당일에도 비가 많이 내리자 우울한 기분으로 강화를 배회하던 중 군인들을 보고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조씨는 또 탈취한 총기를 이용, 2차 범행을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조씨는 화성-안산 고속도로 청북요금소를 통과해 화성 수천리에 있는 자신의 금속디자인 작업실로 도주했다. 조씨는 이곳에서 탈취한 총과 탄통을 작업실 종이상자 안에 넣어두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신문지에 싸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코란도 승용차의 보조범퍼를 뒤편 화성 논바닥으로 차를 몰고 가 불태웠다.

그는 작업실로 돌아와 후배와 함께 총과 탄통을 넣어 둔 종이상자를 작업실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 숨긴 뒤 서울로 올라와 9일까지 자신의 월세방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후 10일 오전 10시께 작업실에서 총과 탄통을 들고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대전고속도로 무주 나들목으로 내려가 호남고속도로 장성 백암사 휴게소 부근에 버린 뒤 남해고속도로를 경유해 밤 10시께 남산에 도착, 편지를 써 연계를 우체통에 넣고 곧바로 서울로 되돌아왔다고 진술했다.

또 조씨가 검거 당시 소지했던 현금 100만원 묶음 2개와 수표 등 1천만원 가량의 자신이 세공업을 했을 당시 갖고 있던 귀금속을 관 돈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연합뉴스

# '탈퇴 후배 보복 폭행' 조폭 3명 영장

## 광주경찰, 2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조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뒤 폭력조직을 탈퇴한 후배를 보복 폭행한 국제PJ과 행동대원 정모(28·광주시 북구 우산동)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송모(26·신서방파)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월 22일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L주점 앞에서 윤모(26·장성군 장성읍)씨를 1시간 동안 때려 잔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조직 선배인 노모(27)씨가 윤씨의 신고로 구속되고, 윤씨가 조직마저 탈퇴하자 앙심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오동도 앞바다 벙커C유 50ℓ 유출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여수 오동도 앞 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1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2일 밤 10시 10분께 여수 오동도 앞 바다에서 198㎍ 기름운반선이 2만 5천 t급 LPG운반선에 벙커 C유를 주입하다가 선박 간 연결 호스에 이상이 생겨 50ℓ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해경은 경비함 10척과 방제선 3척, 민간 선박 1척 등 모두 14척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가 13일 새벽 기름띠를 완전 제거했다.

해경은 선주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기름 유출량을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진블엔비노기과**  
www.jinbl.com  
www.jinbl.com  
발기불능수술  
성형 (062) 233-5119

**나원참** (7383) 김장동

진블엔비노기과  
정·문  
경북, 성지대륙, 기동국과  
정확한 위치를  
찾기

**다름은려속 신협재 KCC**

**DS건설(주)** KCC-청도, 연도, 도매, 대우  
**KCC광도, 시스텔광도 생산-시공**  
▶ 010-20214-1002 ▶ 010-20214-1003

**(주)본드나리** KCC-신리, 연도, 대우  
**실리온·방수제·점착제·타이브**  
▶ 010-20214-1002 ▶ 010-20214-1003

성관계 거부 동거녀에 흉기 휘둘러

○광주 서부경찰은 13일 성관계를 거부하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송모(49·광주 서구 치평동)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동거녀 김모(여·42)씨의 집에서 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목을 조른 뒤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어깨·가슴 등에 잔치 10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4개월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소개로 김씨를 만나 동거 중이었고, 이날 김씨가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찾기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송씨는 범행 직후 동거녀의 집에서 자던 중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달미.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redcap** 광주점 222-3700

**남해관광여행사 225-5544**  
**세진여행사 224-4935**  
**월드항공여행사 225-2255**  
**투어뱅크여행사 224-0022**  
**호남해외여행사 222-7200**

**가족여행, 온천탐방, 하우스텐보스**

**日本 무안-후쿠오카 직항 전세기**

**2008년 1월 8일-20일 6회 운항**

- 1. 무안-후쿠오카 1박1일 ₩529,000
- 2. 후쿠오카-무안 1박1일 ₩549,000
- 3. 무안-후쿠오카 2박 ₩649,000
- 4. 하우스텐보스 특급3일 ₩689,000
- 5. 후쿠오카-무안 3박 ₩689,000
- 6. 하우스텐보스 4일 ₩789,000
- 7. 오사카, 무수항공 4일 ₩799,000